

23장 두로에 대한 심판과 회복

1. 두로에 대한 심판 (23:1-14)

두로의 심판을 말하는 이 부분은 ‘황무하다’ (23:1, 사다드)와 ‘파괴되다’ (23:14, 사다드)라는 두 단어가 앞뒤로 테두리의 역할을 한다. 두로는 서쪽으로는 다시스까지, 남쪽으로는 시홀 곧 나일까지 무역하면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무역에 근거하여 번영을 이루었으나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다.

두로가 존귀하게 되었다가 멸망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교만한 그들을 누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23:9). 바벨론이나 애굽도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두로 역시 같은 전철을 밟았다. 앗수르가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된 것처럼 교만한 두로도 동일한 심판을 받아 견고한 성이 훼파될 것이다.

2. 두로에 대한 회복 (23:15-18)

두로는 심판을 받은 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로는 그때에도 다시금 열방과 더불어 음란하게 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부와 이익은 여호와 앞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될 것이다(23:18).

묵상과 실천:

열방에 대한 심판의 핵심과 결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을 볼 때에 여호와와 심판이 전 세계적인 것임을 보게 된다. 13-23장의 이 경고들은 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쪽과 북쪽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의 결론 격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두로인데, 이들은 상업적인 번영으로 인해 교만하여졌다. 13-23장은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여 상업적인 번영으로 나라를 건설한 두로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으로 마친다. 이것은 바벨론과 두로를 이 세상 나라의 대표로 놓고 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두로의 멸망을 말하면서 바벨론[갈대아 사람]의 멸망에 빗대어 말한 부분도 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들짐승의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23:13). 앗수르가 주전 710년과 689년에 바벨론을 공격하여 황폐하게 만든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빗대어 말함으로써 두 나라가 심판 받는 세상의 대표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노래할 때에 두로에 대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한다. 두 나라는 모두 세상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력과 번영을 근거로 전진하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셨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의 어리석음을 이러한 심판의 말씀으로 알려 주시는 것이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의 구원으로도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

23장 익힘 문제

1. ‘열국의 시장’ 으로서 무역을 하여 부유하게 되었으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1-9절)
2. 두로는 심판을 받은 후 몇 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까? (17절)
3. 회복된 두로는 다시금 열방과 음란하게 행할 것이나 그로 인한 부와 이익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까?
(18절)